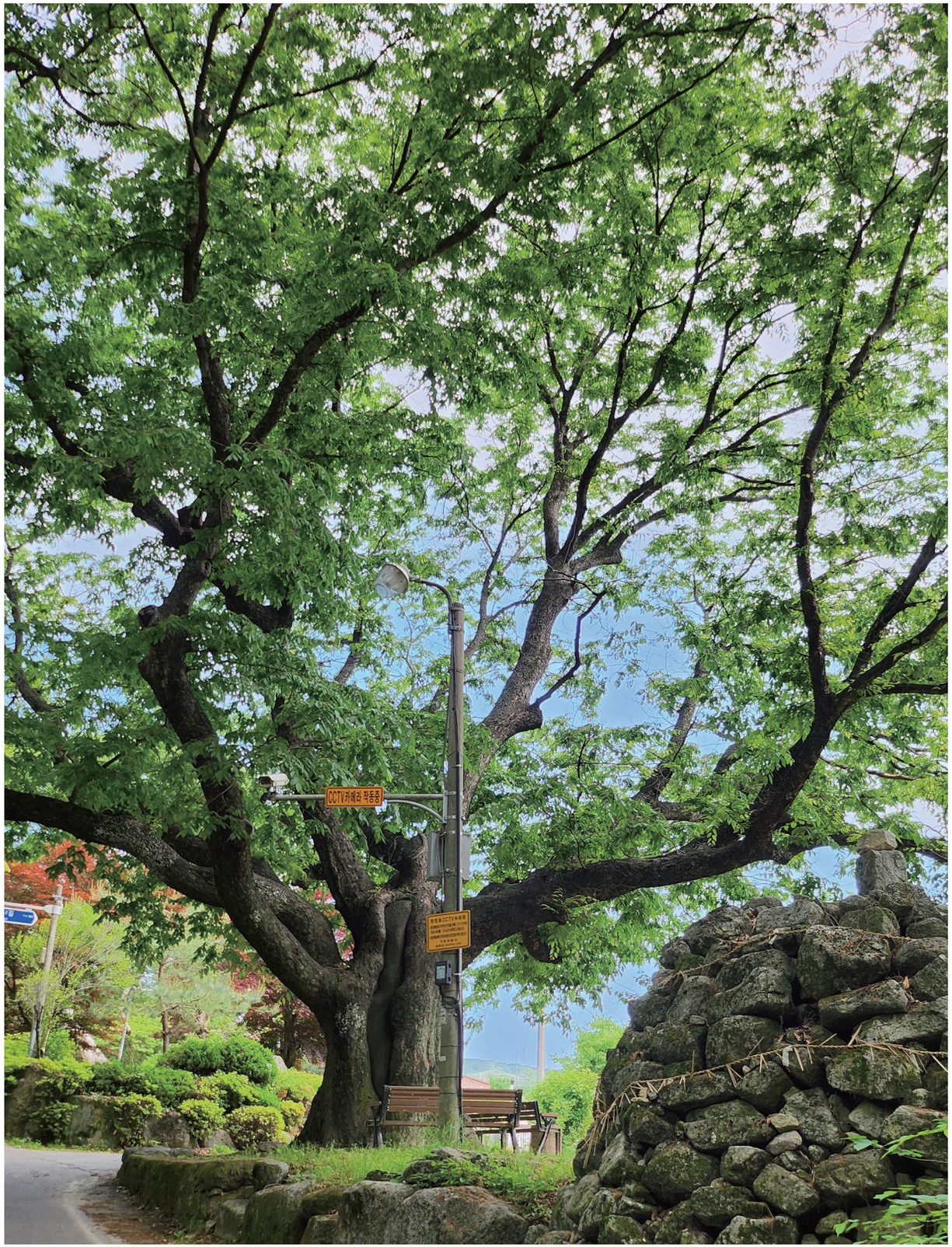
풍수역할 동호숲 끝에 있는 느티나무

지정번호 거창-12-00-23
지정년도 2000
관리기관 거창
수령 523년
수고 19m
흉고둘레 5.1m

경남 거창군 웅양면 동호1길 171-1
35° 47′ 58.14″ N
127° 55′ 23.22″ E



집단의 숲을 지난 동호마을 어귀에 있는 보호수(거창-12-00-23) 느티나무는 오래도록 살고 있는 여러 소나무와 조화롭게 자라고 있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523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19m, 가슴높이둘레는 510cm, 밑동둘레는 694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20m 가량이다. 원줄기는 높이 2.5m 정도에서 여러 갈래로 갈라진 후 다시 작은 가지가 갈라져 퍼졌다.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동호숲'과 함께 신목으로 제를 지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 동호마을은 입구에 집단으로 자라는 소나무숲이 풍수역할을 한다. 동호마을은 형태가 곡식의 껍질을 골라내는 챙이(키)처럼 생겼는데, 남쪽은 챙이 끝이라서 재물이 날아가 버리는 형국이기에 이 재물을 가둘 목적으로 마을 입구에 소나무를 넓게 심었다. 또한 마을 밖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아주며 마을 안의 좋은 기운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 마을의 안녕을 살펴주는 역할이다. 몇백 년 전에 마을 사람들이 심은 것이다. 이 소나무 숲이 바로 마을 이름을 따서 부른 동호숲이다. 동호숲을 걷다보면 숲 끝자락에 커다란 느티나무가 여기저기 자리하고, 보호수로 지정한 느티나무가 나타난다. 보호수로 지정한 느티나무 옆에는 돌무더기가 심상치 않은 모습의 성황단이 자리하고 있다. 돌무더기는 느티나무 가지가 펼쳐진 끝자락 아래에 있다. 고목의 느티나무와 돌을 쌓아 놓은 성황단은 무속신앙의 산신제를 올리는 곳이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음력 정월 대보름에 성황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 성황단에서 발길을 돌리면 우뚝 솟은 서너 그루의 소나무 주위로 평평하게 잘 다듬어 놓은 성스러운 곳이라는 의미의 성대가 있다. 그 성대 아래로 작은 길이 이어져 마을까지 연결하고 있다. 옛 가옥이 있는 동호마을은 연안 이씨 집성촌이다.